

# 영국 Public Records Office 방문기

**국** 제표준화기구(ISO) 산하에 있는 제46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4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의 국내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나혼자만의 엄청난 감투에 아직 만족하고 있다.

지난 5월12일부터 1주일동안 ISO/TC46 총회 및 산하의 각분과위원회(8개분과) 회의 및 약 30개쯤되는 작업단 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 필자와 서울대학교 송기중 교수, 부산대학교 김경석 교수와 함께 참석했다.

이번에 결성된 팀은 주로 국명지명 표기법, 한글로마자 표기법, 전자원고 작성법 등에만 관심을 두고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정보검색, 도서관 코드, 정보자료의 국제번호 부여하기 등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이 분야 국제표준화를 꾸준히 추적하려면 최소한 10명의 전문가가 각 분과별로 과제별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부담만 안고 귀국했다.

국제표준화 회의의 내용에 관해서는 할말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 다른 보고서를 작성해서 국내에 배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다룰 이야기는 좀 회귀한 이야기꺼리라고나 할까?

5월13일 화요일, ISO/WG2(국명지명)의 제정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회의에 참석하기는 처음이다. 그전에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제정하는지 어떤 입김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지 등 탐색해 보기 위해서 참석해 봤다고나 할까?

언젠가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백만번 외쳐봐라. 그래봐야 국제표준이 될 수 없다.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시켜야 국제표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TC46총회에 참석하여 왔지만, 거의 모두가 SC4/WG4(한글로마자 표기법)에만 매달려 다른 분야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었다. 심지어 한때는 12명의 한국대표가 참석한 일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한글로마자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서 한심하게 생각한 일도 있었다.

국명지명에 관한 표준화회의 석상에서 가장 인상깊은 전문가는 영국대표였던 Colin Chapman 씨라는 전형적인 영국인이었다. 듣건데 이 양반이 영국의 지명과 3자기호를 제정한 사람으로서 이 방법대로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제창한 장본인이라고 들었다.

여기에는 ITU, UPU, IATA등 이미 지명을 제정하거나 코드화한 경험이 있는 국제기관에서도 대표가 참석했다. 그러저럭 회의가 끝났다. 결과보고를 여기서 하려는 것은 아니다.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음날 주취측에서 주선한 기관방문에 직접 참여했는데 바로 그곳이 Public Records Office란 곳인데 회의장에서 택시요금 5파운드 거리. 안에 들어가보니 보안상태가 어마어마하다. 수속을 마치고 목에 거는 명찰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내하는대로 따라다녔다. 귀중문서와 국보급 귀중품들로 꽉 차있었다. 가장 질문이 많은 사람이 필자



었던 것 같다.

“하루에 몇사람이나 열람하러 오는가?”

“300명쯤인데 주로 PRO자료”라고 대답한다.

그 안에 도대체 무슨 문서가 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매일 찾아 오는지 궁금해 또 물어보니 거의 모두가 Family History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했다. 어찌나 빠른 영어로 말하는지 30~40%는 알아들었을까? 그래도 알아 들은척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도 조상찾기가 인기가 있는데 어떻게 조상을 찾지요?”

“오늘 아침에 TV에서 못보셨어요? 미국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실은 아일랜드 출신인데 그 사람의 7대조 친척 사촌들이 아직도 아일랜드의 피슬리란 곳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조상찾기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서점에서 팔고 있으니 그걸 참고하세요.”

서점에 가서 Family Tree, Family History란 월간지를 우선 2권 구입하고 또 ‘영국족보학회 연합회’라는 곳에서 발간된 전문지, 족보를 PC로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도 구입했다. 영국책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값이 싸서 좋다. 30파운드쯤 썼을까?

회의장에 올때는 TC46회장인 Horsnell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왔다.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회장이 필자한테 다가와서 족보에 관한 영국최고의 전문가를 소개할 터이니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라고 권한다. 그러마고 대답했는데 영국인사 한 분을 데려왔다. 인사하고 명함을 교환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

“WG2 국명지명 회의장에서 봐서 안면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PRO에 갔었다면서요? 그리고 조상찾기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졸지에 족보전문가가 되어버렸다.

“한국에도 족보란게 있는데 내 경우는...”하면서 설명을 자세히 했더니 아주 감동하는 눈치였다.

“PRO 서점에 진열된 책 가운데 8권은 내가 쓴 책이지요. 그 중에서 영국 조상을 추적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이 조상을 찾는 첩경이지요.”

다음날, 그가 책을 한보따리 가져왔다. 모두 8권이다. 한권은 기증해 주었지만 나머지는 30파운드를 주고 샀다.

귀국하는 기내에서와 귀국하고 나서 이들 책을 숙독했다. 정보자료로서는 호적이나 주민등록, 국세조사자료, 세금납부기록, 교회의 결혼 및 세례등록, 법원기록, 유언장 등 조상을 찾기 위한 정보소스를 총망라해서 접근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다른 책에서는 PC로 정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었다. 스스로 조상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조상찾기 전문가가 많아서 대신 찾아주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사무실도 아주 많다. 이들이 대신 찾아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두페이지씩이나 내고 있는걸 보면 영국의 조상찾기 모습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18세기부터 매10년마다 국세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한다.

PRO에 들어가면 첫 홀이 수백명이 동시에 앉을 수 있는 열람실에 앉아서 자료를 먼저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다. 바로 검색이 되면 필요한 원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되면 공중에 달린 케도에 상자가 자동적으로 운반하여 준다. 여기서 찾는 내용을 찾아내면 되는 것이다. 모두가 자동화가 되어서 원문의 상당수가 마이크로 필름화 되어있다고 한다. 런던의 자료를 벨파스트에서 온라인으로 검색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정부문서보존소라는 곳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번 가보지를 못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조상찾기를 한다면 여기서 과연 가능할까? 생각하여 본다. 호적, 주민등록은 내무부 관련일 것이고 세금관련 자료는 국세청일 것이고, 교회기록도 무시 못할 것이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고문헌이 제법 많은 것 같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집안마다 내려온 족보가 있다. 훌륭한 데이터베이스감이 너무도 많다. **HC**

〈한국정보유통센터 회장〉